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경제정책에 대한 현대적 조명

이경락(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경제/경영 2-3)

논문초록

이 논문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독특한 경제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군사정권 이후 이 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의 변천과정을 요셉의 통치관과 경제관을 통해 재조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비록 요셉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점이 그의 없을 정도로 급변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원리나 경제정책의 근본목적은 경국제세 즉, 국가를 잘 경영하여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년간의 흉년을 지혜로운 토지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애굽의 온 백성들을 구제하고 정치, 사회, 경제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국가를 재편시킨 요셉의 경제정책을 그의 인생관과 더불어 살펴봄으로써 지나간 우리의 경제정책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향후 우리 국가경제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통치자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제어: 경제정책, 토지정책, 성장정책, 분배정책, 하나님의 나라

I. 연구의 필요성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어 국가적 위기를 지혜로운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하고 선정을 베품으로서 그리스도의 예표로까지 칭해진다. J. Calvin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이며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된 사람으로서 그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대신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백성들을 빈곤과 죽음에서 구원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1] 요셉이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던 기원전 15세기의 단순한 경제체제와 21세기 글로벌 경제시스템은 엄청난 질적, 양적인 차이가 존재한다(이경락, 2010). 매우 단순한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당시 애굽의 경제현안은 고대시대 대분분의 나라들에서처럼 백성들을 빈곤과 가난으로부터 구휼하고 충분하고 안정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2] 오늘날과 같이 경제시스템이 국제화되고 국가간의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조차도 국가경제의 근본목적은 경국제세(經國濟世) 즉, 국가를 잘 경영하여 세상(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경제시스템이 변천해 간다 하더라도 백성을 이롭게 해야한다는 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시 요셉이 시행한 독특한 경제정책에 주목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요셉은 대략 14년 정도의 통치과정을 통해 애굽의 정치형태를 총체적인 전제군주국가의 전형적 형태로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일견 요셉의 정책을 어려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한 냉혹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안영호, 1994). 그러나 성경에 제시된 자료가 많지 않아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지만 오늘날에 와서 요셉의 국가 운영정책을 평가해 보더라도 백성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소기의 정책적 목표를 완수하고 나라를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놓았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성장과 권력유지를 위해 소중한 인권과 행복을 포기당하고 억압당해야 했던 우리의 역사와 비교평가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회불균형 해소와 분배의 정의라는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생겨난 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 반목상황을 요셉의 정치철학을 통해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국제화와 선진화를 지향해 나가면서도 우리 민족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는 진정한 세계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요셉의 세계관 및 역사관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요셉은 국가체제의 완전한 변형을 가져온 혁명적인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굶주리고 죽음에까지 직면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버이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난 통치자들과 앞으로 우리 민족을 지도해나갈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

1)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Genesis Vol. 2 (Michigan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406-415.

2)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기원을 밝히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 중 가장 으뜸되고 큰 것이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며 그 다음으로 집, 옷 등의 순서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플라톤, 「국가」, 조우현역, 369 c-d, 1987).

II. 국가의 경제개입론에 대한 논쟁들

A. Smith가 국부론(1776년)을 통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므로 국가개입을 반대한 이래 국가의 경제개입론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전개되어 왔다. 이 자유방임이론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독점자본주의가 출연하면서 그 지지기반을 잃게 되었다가 1930년대 대불황의 영향과 2차 대전 이후 전후 복구의 필요성,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의 건국, 개발도상국가들의 식민지 해방 이후 산업화 추진을 위해 국가 개입주의로의 극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는 후생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이윤재, 2004)이었다. 이러한 국가개입주의는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의 붕괴, 개발도상국의 탈규제 프로그램 확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복지국가주의의 권위 상실 등의 영향으로 1970년 중반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주의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중심이 되었는데 고전적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을 지지하면서 자유시장기능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은 무용하고 반생산적임을 주장하였다. 장하준(2006)의 주장처럼 사실 반개입주의자들의 공통점은 경제의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몰입되어 있다는 점이 우려할만하다. 신자유주위자들은 글로벌화된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상황 하에서 중앙계획 경제는 비합리적이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탈규제 및 자유시장 경제시스템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나친 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이후 강력한 국가개입과 국제간 공조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형태의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가 처한 문화, 사회 및 경제발전 단계나 경제개발 목표가 상이한 만큼 국가개입 정도나 경제정책의 채택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구사되어야 한다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재확인하게 만들었다. 초기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기초를 마련한 루터, 캘빈, 웨슬리 등은 개인에 의한 집중적인 부의 소유가 반성경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 의한 경제개입과 소득 배분정책은 성경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윤재, 2004) 장하준(2006)은 모든 형태의 국가개입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신자유주의의 지나친 시장신봉주의를 비판하면서 전시(戰時)나 우주개발 계획처럼 압도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앙계획경제가 시장보다는 더 잘 작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II. 요셉의 국가개입 정책에 대한 평가

요셉의 국가개입 정책은 당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국체(國體)[3] 전반을 개혁한 가히 혁명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창세기 47장에 나탄난 요셉의 정책은 토지정책, 농업정책, 토지개혁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요셉이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 애굽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3)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국가(politeria)는 나라의 체제(국체 ; 國體), 나라의 구성,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플라톤, 「국가」, 조우현역, p.13, 1987).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는 가장 높은 형태의 공동체를 국가로 보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나종일, 천병희역, p.32, 1987).

비교적 이완된 형태의 군주제 -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바로가 신적 권위를 가지는 형태 - 였다. 요셉의 등장으로 애굽은 바로(왕)가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는 형태에서 총리대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간접 통치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왕의 신적 권위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분은 물론이고 토지와 짐승을 포함한 모든 소유가 바로의 것이 됨으로써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1인 지배체제(절대군주제)가 확립되었다. 결국 요셉의 통치로 인해 바로는 전제군주가 되었고 백성들의 신분은 자유민에서 노예 또는 농노가 된 것이다. 당시 이러한 애굽의 노예제도는 사회학적으로 총체적 노예제라 불리운다.[4] 요셉이 시행한 이 정책을 두고 매우 냉혹한 이성적인 정책이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본 저자는 요셉의 인생관과 당시의 특수한 애굽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매우 단편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고 싶다.

요셉의 토지정책은 애굽의 농작물 생산량과 기후 변화, 인구 등을 고려하여 최소 14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시행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대형 프로젝트였다. 사회경제사(조기노역, 1987)에서 막스 베버는 서구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계획적 국가경제정책(前資本主義 시대의 국가경제정책이라 명명함)이 성립된 시기를 4세기 무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요셉의 토지정책은 기원전 15세기에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쇄는 물론이고 온 국민과 바로의 생명마저도 흉년과 기근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채택된 -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시행된 - 놀라운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5] 플라톤의 국가편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현자들의 논쟁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나 단지 빌린 것을 갚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되거나 고찰되어야 할 개념이 아니며 국가에 있어서의 정의로 확대해서 고찰되어야만 정당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6]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2장 말미 부분에서 신자유주의의 획일적 경제논리를 반박한 장하준 박사의 견해를 따른다면 요셉의 토지정책은 당시 애굽의 특수한 경제상황에 부합되는 매우 적절한 정책으로서 국가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7]

Ⅳ. 요셉의 토지정책의 성경적 의미 (소유를 거두고 생명을 공급함)

요셉의 통치는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기근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식량을 공급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살리는 통치였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모든 통치의 근본적인 목표는 사람을 살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모든 소유 - 돈, 가축, 토지, 몸 - 를 몰수하게 된다. 그리고 그 댓가로 종자와 양식을 공급하여 그들을 살리게 된다. 즉, 소유를 거두어 들이고 생명을 공급한 정책을 사용한 것이다.

인생들은 잘 모르고 생명은 무시하고 소유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팔아서 육신의 소유를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망령된 자

---

4) 문희석편, 「사회학적 구약성서 해석」, 양서각, 264-266, 1987.
5) 물론 요셉이 시행한 계획경제를 막스 웨버가 정의한 국가경제정책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플라톤, 「국가」, 조우현역, 327a-443c, 1987.
7) 옥스퍼드 선언에서는 정부를 하나님이 공동체를 경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창조적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전상국역, 1991).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히브리스 12장 16절). 즉, 무엇이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것을 알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생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유를 거두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꾸어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 가를 알게 되고, 소유를 바꾸어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애굽의 상황은 모든 재산이 국유화되고 백성들은 소작인이 되었으니 마치 공산주의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면 큰 축복이지만 육신 안에서 해석이 되면 엄청난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원래 자기 소유가 아무 것도 없는 자이며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분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는 말씀은 온 천하(소유)보다 제 목숨(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리석은 인생에게 일깨워주시는 말씀이다(마가복음 8장 36절).

결국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몰수하고 대신 그들을 살게 해주었다. 만일 백성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요셉이 공급한 양식이 없었더라면 7년 간의 흉년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요셉은 무엇이 중요하고 사람을 살게 하는 지를 이해한 지혜로운 통치자였다. 토지정책[8]의 시행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사회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게 되었는데 왕이 백성을 먹여 살리는 소위 이상적 공산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통치자가 참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공산주의는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지배자(착취자)가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인생은 결국 바꾸는 것이고 이 바꿈이 얼마나 온전하고 영원한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 무엇을 바꾸느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바꾸어진다. 요셉은 살게 하지 못할 것들을 모두 거두고 살게 하는 것을 공급했으므로 가장 현명한 통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Ⅴ.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성경적 조명 (군사정권 이후 이 명박 정부까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채택한 주요 경제정책들을 전형적인 강력한 국가개입정책을 실시한 요셉의 재정 및 국가운용정책을 통해 재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10년 간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1998년부터 2008년까지)에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이경락, 2005).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인지 아니면 국민적 아픔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여서인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간의 평가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집단 간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내재해 있던 권위적 요소들(긍정적인 의미의 권위든 부정적인 의미의 권위든지 간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이 시기를 우리 민족사의 내적 성숙기로 평가하고 싶다.

---

8) 김재진(2002)은 세계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및 경제공황의 원인은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탐심과 바알의 토지법에 있다고 주장한다.

1. 박정희의 정권의 성장정책과 요셉의 정책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을 군사정권의 고도성장기(1963년 ~ 1979년),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내적 성숙기(1998년 ~ 2008년), 현 정부의 선진도약기(2008년 ~ 현재)로 나누어 보았을 때,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이나 절대적 빈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정권(1963년 ~ 1979년)의 재임 초기와 요셉이 통치하던 당시의 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요셉이 국가경제적 위기 상황을 14년간의 계획경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박 정희 대통령은 35년간의 일제침탈과 한국전쟁으로 절대빈곤국이 된 우리 나라를 15년간의 재임기간 동안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워지는 놀라운 경제성장(성장정책)으로 이끌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치적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반인권 독재의 명암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것 같다. 얼핏 보면 요셉이 백성들의 소유권과 신분을 완전히 장악하여 노예상태로 전락시킨 것처럼 보이나 극도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양식을 가진 애굽정부에 모든 것이 귀속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했으므로)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토지정책과 배분정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독특한 구제정책의 결과 창세기 47장 25절에는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자신들을 죽음에서 살려낸 바로에게 종속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성경기록에는 없지만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보살피면서 요셉은 마치 친자식과 가족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이 마음이 백성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참된 통치자를 대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이지만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를 생명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존경하며 기꺼이 자신을 바치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박 정희 대통령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세계 최빈국을 전도양양한 개발도상국의 반열에 올려 놓았으나 장기 집권에 대한 정치적 야욕과 무리한 인권 및 정적 탄압으로 그 자신 역시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손에 암살되고 만다. 이 사건은 박정희 개인의 몰락을 넘어 우리 민주화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후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의 장기집권과 엄청난 민족적 분열을 초래하였다.

요셉과 박정희 대통령은 뛰어난 리더쉽과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지고 연단받은 온전한 인격체인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참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욕망과 야심으로 최측근들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9]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어린 나이부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대신이라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교만하여 바로를 넘보거나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인간적인 능력은 놀랍고 위대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사

9) Hartman과 Brown(2000)은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람으로 다루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매몰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과 요셉의 정책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1998년 ~ 2003년)는 강력한 구조조정(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 부채비율 축소정책 등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규율 확립,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을 통해 외환위기를 예상보다 3년 앞당겨 극복하고 2001년 8월에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최초의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 대북포용정책으로 남북간 긴장완화, 권력분할에 의한 권위주의의 청산, 군사정권과의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내었고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인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철폐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카드대란과 부동산투기 발생,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부의 해외 유출과 중산층 붕괴(이혁배, 2004), 지나친 대북 저자세 외교로 인한 제2연평해전 초래, 대기업 규제정책으로 인한 미래성장동력 약화, 정치적 표풀리즘으로 구군사정권 잔재의 청산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7대 대북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현대가 북한에 지급한 4억 5천만 달러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보수진영에서는 1970년대부터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 핵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불법 송금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는 외환위기를 짧은 기간 내에 극복하였으나 과도한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로 인해 수 많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외국계 펀드에 매각되는 등 엄청난 국부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특히 대북포용정책인 소위 햇볕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송금사건과 개성공단의 설립은 현 정부에 와서까지 엄청난 안보상의 위협과 경제적 손실 및 정치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요셉이 선택한 통치수단들은 당시 애굽의 백성들과 국가가 당면한 위기상황과 애굽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자신이 집행하게 될 정책이 가져올 사회, 경제,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이었다.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가 된 요셉은 가장 먼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전국적인 양식의 소출상황을 파악한 후, 7년의 풍년기간 동안 매년 곡물 생산량의 20%를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게 한다. 20%의 소득세는 십일조보다도 높은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풍년 때의 20%의 세금을 백성들은 과도히 높은 세금으로 체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셉은 비축한 양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섣부른 인기영합적 무상배분정책(분배정책)을 통해 양식을 고갈시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돈과 가축과 토지와 백성들의 신분을 국가에 귀속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애굽정부는 전국적인 장기적 국가재난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돈, 양식)과 노동력(가축, 백성)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것이다. 요셉은 7년 흉년이 끝나갈 즈음에 백성들에게 종자를 공급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고 소출이 나면 생산량의 1/5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였는데 이러

한 정책 역시 실업수당 등의 제공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오히려 상실하게 함으로써 무노동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서구의 일부 복지국가들과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0)]

이와 같이 요셉이 시행한 정책들은 대중인기 영합주의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진정으로 국가와 백성의 장기적인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안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과 요셉의 정책

노무현 정부(2003년 ~ 2008년)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자금 모금과 선거운동으로 탄생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고 불리워진다. 이 시기는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시민계급의 역할 증가, 2차 남북정상회담, 한미 FTA 타결, 외환보유고 및 수출의 지속적 증가,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주가지수의 급격한 반등 등의 치적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악화 및 재정적자와 경기부진에 의한 세수부족으로 국가부채 증가, 저조한 실질소득증가율(GNI), 부동산 가격의 폭등,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급증(체감실업율의 증가), 미미한 기업설비투자,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11)]로 서민경제가 침체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다고 평가된다(나성린, 2008). 노무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념적이고 과거지향적이었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정치인 중심의 국정운영[12)], 반기업 및 반시장적 경제정책, 성장과 경쟁보다는 분배정책으로(하향평준화 교육정책, 지역균형발전) 인해 기득권 세력과의 수 많은 갈등을 초래하였고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국론분열과 침체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요셉은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으나 기득권 세력인 바로의 제사장들을 우대하여 그들의 전지는 매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소유 및 경작을 보장하였다(창세기 47장 22절 및 26절). 제사장들은 바로의 신격화 및 왕권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직으로서 요셉은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토지매입 정책에서 이들을 제외시키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요셉은 기득권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요셉의 정책들은 미래지향적이었으며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신중한 분배정책을 구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경제적 상태와 욕구를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토지를 재건하고 백성들이 경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하였다(창세기 47장 23절 ~ 26절).

이상과 같은 요셉의 지혜롭고 현실적인 정치 · 경제정책들을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비전문적 정치 ·

---

10) 충분히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예를 들어 월 80만원의 소득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복지수당(예를 들어 월 80만원 이상)을 제공하게 되면 이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실업수당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국가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국가예산 및 노동력의 낭비, 근로자 개인으로는 삶의 의미와 노동의 가치상실 등의 손실을 초래하게 만든다(맨큐의 경제학, 2001).

11)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층 비율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나성린, 2008).

12) 참여정부는 국무총리와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여 내각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였으며 청와대는 부처간 중재역할을 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치구도 때문에 대통령 탄핵시에도 내각의 국정운영은 큰 차질없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내각을 장악함으로써 비전문적이고 정치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 진다.

경제정책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경제의 기본목표인 경국제세 - 국가를 잘 경영함으로써 백성을 행복하게 만든다 -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미래를 내다보고 민심을 파악하는 안목과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의 선진일류국가 목표와 요셉의 정책

이 명박 정부는「발전과 통합을 통한 선진일류 국가」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류화 정책과 친서민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최근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세계경제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화 정책과 요셉이 시행한 당시의 세계화 전략을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요셉은 최소 14년간(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성장(비축) 및 분배정책을 통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물론이고 인근 국가들을 국가적 재난에서 구할 수가 있었다.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당시 주변국들에서도 비슷한 기후조건으로 흉년이 수년간 지속되자 자국 내 양식이 고갈되었고 풍부한 양식이 있는 애굽에서 식량을 매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13] 요셉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양식 비축정책은 애굽백성들과 주변국들을 죽음과 고난에서 해방시키게 되었다.

최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한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 일국의 경제적 이익이 주변국들에게는 경제적 손실과 실업율의 증가 등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한 국가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요셉이 시행한 정책들은 참다운 세계화를 위한 소위 윈-윈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세계화는 세계 각국이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을 선택 · 수용함으로써 전 세계가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일부 국가의 극단적인 이기적 선택이 수 많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음을 우리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해 경험해 왔다.

이명박 정부도 물질적, 경제적 선진화를 통한 일류국가의 달성만이 아니라 이를 주변국들과 같이 공유하는 진정한 세계화의 지혜를 요셉의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하겠다. 요셉이 이상적 통치자의 모범이 된 것도 경제적 성장만이 아닌 이를 가난한 나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분배정책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13) 창세기 41장 56절 ~ 57절 말씀 :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Ⅵ. 결론

오늘날과 같이 이해관계자 집단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화된 경제상황과 요셉 당시의 단순한 농업중심의 경제체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요셉의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치밀함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은 경제정책의 명암과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는 지난 우리 정부들의 성과들을 평가할 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제의 침탈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 나라에 경제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었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발전과 정권유지를 위해 우리 국민들은 수 많은 정치적 자유를 억압당해야만 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앞당겼으며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정치적 표퓰리즘, 중산층과 수 많은 기업들의 몰락,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북한의 핵개발 여지를 제공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경유착과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구사함으로써 가장 도덕적인 정부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론의 극심한 분열과 국가경제의 심각한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권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성장정책, 분배정책, 사회통합 및 일류화 정책 등은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르고 정책의 과오(過誤)는 나름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잘 다스려 행복한 백성을 만들고자 한 면에서 그 목표는 일치하고 있다. 현 정부가 세계 일류화를 향한 기치를 높게 펼칠 수 있는 것도 지난 군사정권과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 그리고 시행착오와 국민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요셉이 인근 국가들과 백성들에게 수행한 분배정책을 보면 진정한 세계화는 경제적인 비교우위의 달성만이 아니라 후발국들과 공존공영하는 정책을 통해 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셉의 토지정책 및 분배정책은 애굽의 온 백성들과 인근국가들을 구제하고 애굽의 정치, 사회, 경제의 전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시킨 사건이었다.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혁명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의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과 참된 통치자로가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셉은 바로를 통해 실질적인 통치자로서의 전권을 위임받았으나 바로의 제사장들을 우대하고 애굽의 모든 소유를 바로에게 귀속시키는 참된 청지기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였다. 무엇보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안착시키는 임무를 완수하므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경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요셉은 참된 통치자는 권력자나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배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자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요셉이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역경을 이겨내고 만 백성을 살리는 통치자가 된 것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꿇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빌립보서 5절 ~ 11절). 따라서 요셉은 진실과 충신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의 예표로 불리워지는 것이다(요한계시록 19장 11절).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죄와 허물을 문책할 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창세기 50장).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다루어지고 연단된 사람이었으므로 절대적 권

력을 가졌지만 이를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하지 않았다. 우리 근현대사는 권력욕과 정치적 이념의 대립으로 서로를 죽이고 핍박함으로써 불행한 대통령들과 불행한 역사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로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이 드려짐으로 연단과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함으로써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젊은이들이 국가 지도자로 많이 성장·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재진 (2002). 『기독교와 경제』. 도서출판 셋.

나성린 (2008).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경제. 『신동아』 통권 581, 150-159.

나종일, 천병희역 (1987). 『정치학』. 삼성출판사.

문희석편 (1987). 『사회학적 구약성서 해석』. 양서각.

안영호.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94.

오필환. "기독교적 윤리경영에 관한 연구," 『기독교대학 & 학문』 No. 1, 63-89 (2008).

이경락.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신앙과 학문』 제10권 제2호(2005, 12): 145-168.

이경락. "글로벌 금융위기에 나타난 도덕적 해이현상에 관한 성경적 고찰," 『로고스 경영연구』 제8권 제2호(2010, 8): 215-232.

이윤재 (2004). 『성경속의 경제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이혁배. "한국 사회의 분배문제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 『경제문제와 기독교윤리』 213-246 (2004).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전상국역 (1991). *Oxford Declaration on Faith and Economics*, 크리스천 신앙과 경제학에 관한 옥스퍼드 선언, CUP.

조기노역 (1987). 『사회경제사』. 삼성출판사.

조우현역 (1987). 『국가』. 삼성출판사.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Genesis*, vol. 2 (Michigan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406-415.

Linda Klebe Trevino, Laura Pincus Hartman and M. E. Brown, "Moral Person and Moral Manger,"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42, No. 4(2000), 128-142.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김경환, 김종석 역(2001). 『맨큐의 경제학』. 440-441, 교보문고.